

# 1711년 『兩東唱和後錄』 과 한일의학문화교류

차웅석\* · 박히준<sup>1</sup> · 안상우<sup>2</sup> · 김남일 · 신민규<sup>3</sup>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1: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2:한국한의학연구원 학술정보부, 3: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 YangDongChangHwaHuRok and the Korea-Japan Medical Culture Exchange of the Year 1711

Wung Seok Cha\*, Hi Joon Park<sup>1</sup>, Sang Woo Ahn<sup>2</sup>, Nam Il Kim, Min Kyu Shin<sup>3</sup>

*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1:Department of Meridian & Acupunctur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2: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3: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YangDongChangHwaHuRok(兩東唱和後錄) is a book that organized the conversation between Joseon physician Ki-DuMun(奇斗文) and Japanese Acupuncture specialist Murakami Tanio(村上溪南) and others when they visited the quarters where the Choson Delegation(朝鮮通信使) were staying in, while the Choson Delegation party were visiting Japan in 1711. YangDongChangHwaHuRok(兩東唱和後錄) was discovered in the process of gathering medicine-related historical documents of the Choson Dynasty that is spread out all over the Japanese region, with the help from Japanese and Chinese scholars. This was part of the Co-Examination-Research-Process of Korean medical documents that are located in the East Asia traditional medical region, which was promot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in 2003. This paper has analyzed in-depth, with an inner-medical view, the academic exchange content of YangDongChangHwaHuRok(兩東唱和後錄) by following the order of the main text. With this examination, we were able to discover new facts about the interest in Primary Symptom(是動病) and Secondary Symptom(所生病) of 17th century doctors, a new hypothesis on the diffusion of HeoYim(許任)'s ChimGuKyungHeomBang(鍼灸經驗方) in Japan, the existence of a new acupuncture tool called ChongChim(腫鍼), and the influence of the 18th century famous traditional medical books (it is called UiHakYipMun(醫學入門) and ShinEungKyung(神應經)) on the 18th century East Asian medical circle. We were also able to ascertain the specific medical content that was diffused to the Japanese medical circle by the Korean medical circle.

Key words : Choson Delegation, Korean medical history, Japanese medical history. Ki-DuMun, Murakami Tanio

### 서론

『兩東唱和後錄』은 1711년 조선통신사 일행이 일본을 방문하였을 때, 日本의 針醫 村上溪南 및 그의 長子 周男 등이 조선통신사 일행이 머무르고 있는 숙소를 방문하여 조선의 名醫 奇斗文과의 사이에 針術에 관해 문답한 내용을 정리한 글이다.

이 『양동창화후록』은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2003년에 실시한 동아시아 전통의학권 소재 한국본 의학문헌 공동조사연구

\* 교신저자 : 차웅석,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chawung@khu.ac.kr, · Tel : 02-961-9446

· 접수 : 2005/01/28 · 수정 : 2005/03/02 · 채택 : 2005/04/04

과정의 일환으로 일본과 중국학자들의 협조를 받아 일본 전역에 산재해 있는 조선시대 의학 관련 사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자료이다. 『양동창화후록』 외에도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확보한 자료는 현재 40여종이며, 이외에도 발굴하지 못한 많은 자료들이 일본에 산재해 있다<sup>1)</sup>. 이는 조선시대 한국의학계가 일본의학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실증해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조선은 건국 직후부터 일본에 사절단을 파견하였으며 임진왜란 이후 처음 몇 회는 포로송환의 형식을 띠고 파견하였고, 1636년부터는 정식으로 通信使라는 명칭으로 일본에 대규모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이 사절단에는 의약관련 관료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1636년의 사행 때에는 문서를 통해 유능한 의사

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1682년부터는 정식으로 良醫의 직함을 가지고 사행에 참가하였다. 통신사절단이 도착 하면 일본의 의료관계자들은 의료선진국이었던 조선의 의사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연줄을 통해 조선 의사와의 면담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일본의학계는 그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를 꼼꼼하게 기록하여 책자를 발행하였고, 그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다.

한국한의학연구원 2003년도 연구보고서인 東亞細亞 傳統醫學圈 所在韓國本醫學文獻 共同調查研究에서는 중국학자 梁永宣 교수가 간략히 해제형식으로 정리하였고, 2004년에는 한의학지식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국문해제를 달아 이미지와 원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였다.(<http://jisik.kiom.re.kr/>) 그리고 필자는 근자에 같은 1711년 신묘사행중의 또 다른 기록인 『桑韓醫談』에 관한 표본연구결과를 한국의사학회지에 발표하였다<sup>1)</sup>. 본 연구는 그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본고에서는 『양동창화후록』에 수록된 침구의학의 학술내용을 분석하는 것을 위주로 하였다. 이에 앞서 독자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양동창화후록』의 배경이 된 辛卯년 조선통신사에 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언급하였지만, 거의 모든 내용은 기존 조선통신사 전문 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하였다. 본문에 해당하는 『양동창화후록』의 의학학술교류내용에 관한 고찰은 본문내용의 순서를 좇아 가면서 조선의사 奇斗文과 일본의사 村上溪南사이에 오간 문답의 내용을 의학 내적인 입장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 본 론

### 1. 辛卯使行과 『兩東唱和後錄』

1711년 조선은 숙종37년, 일본은 正徳元년에 해당하는 이때에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한 전 과정을 편의상 辛卯使行이라고 한다. 그해 9월 14일 조선사절 일행을 태운 배가 大坂에 도착하였다. 『양동창화후록』은 동 20일 일본의사 村上溪南 등이 西本源寺에 머무르고 있는 조선통신사 일행의 숙소를 방문하여, 醫官(당시 공식 직함은 良醫) 奇斗文과 문답을 진행한 후에 정리하여 간행한 것이다. 신묘사행은 명목상으로 日本의 6대 將軍家宣이 將軍職을 승계받은 것을 축하하기 위한 사절이며 이를 위해 조선에서는 正使 趙泰儀, 副使 任守幹, 從事 李邦彦을 대표로한 통신사를 일본에 파견하였다. 5월 15일 숙종을 알현하고 떠난 일행은 7월 15일 부산을 출발하여 9월 16일 大坂에 입성하였고 11월 1일 江戸에서 정식 국서교환의식이 행해졌다<sup>2)</sup>. 그러므로 『양동창화후록』에 나오는 村上溪南부자와 奇斗文과의 9월 20일의 대화는 통신사 일행이 조선을 출발해 江戸로 가는 일정 중에 이루어

어진 것이다.

일본이 통신사로부터 유교나 의학 분야에서 신지식을 얻으려고 높은 열의를 보낸 것은 조선의 사절단이 일본에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있어온 일이다. 그러나 그들을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은 막부직에 있는 자나 아니면 통신사를 영접하는 영주 또는 그 측근이 아니면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사행중의 통신사의 전반적인 일정은 모두 대마도 측 관료들이 일본 막부의 대리자격으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신사와 사적인 접촉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대마도 측 담당 관리에게 허가를 얻어야 했다<sup>3)</sup>. 『양동창화후록』의 村上溪南은 대마도의 의사인 梯氏靖庵을 통해 면담기회를 얻게 되었다.[…同二十日 對馬州之醫士 梯氏靖庵 誘于予及男周南門人杏仙 於西本願寺堂 初會 雞林醫官 宣務郎典涓司 直長 奇斗文 - 『兩東唱和後錄』] 같은 신묘사행중의 기록인 『상한의담』에서도 北尾春圃는 雨森芳洲<sup>4)</sup>라는 대마도 관리를 통해서 면담을 요청하였다<sup>5)</sup>.

임진왜란 후의 통신사는 본래 豊臣秀吉의 뒤를 이은 徳川家康이 조선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회복하기 위해 포로의 송환을 들어 조선에 사절단을 요청한 일종의 정치적인 목적에서 출발하였지만, 이후 통신사는 문화교류라는 의미가 더 중요하게 부각되었다<sup>6)</sup>. 韓泰文은 그의 논문에서 통신사절의 正使, 副使, 從使의 三使가 당대를 대표하는 문장가였음은 물론이고, 수행원들은 거개가 천문, 지리, 복서, 의술, 관상, 무력, 바둑, 음악, 미술, 말타기, 활쏘기 등에 능한 사람들이었으며, 이는 당대 조선의 대표적 예능인들로 구성된 일종의 문화사절단이었고 통신사의 사행은 조선 후기 한일문화교류의 공식적인 통로였다고 설명하였다<sup>7)</sup>. 또 이원식은 “... 조선통신사의 방일에 있어서 막부당국은 물론이고 각 영주를 비롯하여, 의사, 무사, 정인, 농민 등 일반서민에 이르기까지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 중에서도 일본의 유학자와 문인들은 조선사절과의 접촉과 교류를 종신의 영예로 삼고 조선사절이 객간에 머물 때마다 앞 다투어 면접을 요청하고 필담과 시문창화 서화의 휘호를 구하며 문화교류를 한층 더 깊이 하였다...”<sup>8)</sup>라고 묘사하였다. 이들의 일본에서의 활약은 대단했는데, 金景淑은 “...이들과 일본학자들이 주고받은 시문, 심지어는 대화내용까지 즉시로 출간되어, 江戸로 가는 도중 大坂에 들려 주고받은 문답들이 강호에서 돌아오는 길에 大坂에 들르면 이미 출간되어 나올 정도였다. 이들은 밥 먹을 시간, 잠잘 시간도 없이 일본문인들을 상대했는데, 한사람이 수 천개 이상의 시를 쓰곤 했다...”<sup>9)</sup>고 표현하였다. 이 외에도 일본인들이 가장 일고 싶어 했던 것은 조선의 의료기술과 의서, 약물에 관한 내용이었다<sup>10)</sup><sup>11)</sup><sup>12)</sup>

6) 箕輪吉次, 天和二年(1682)의 朝鮮通信使, 亞細亞文化研究 第6집, p119

7) 당시 대마도 관리였으며 京都人, 또는 伊勢人이라고도 한다. 이름은 東이며, 원래 이름은 俊良이다. 자는 伯陽이며 호가 芳洲, 尙綱堂이다. 통칭 東五郎이라고 하였다. 木下順庵의 문인이며, 대마도의 관리로서, 조선어와 중국어에 능통하였고, 조선사신을 접대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8) 차웅석 외, 『桑韓醫談』과 한일의학문화교류, 韓國醫史學會誌17권2호, p77, 2004.

9) 芳賀登, 朝鮮通信使의 발자취, 韓國學論集 p284, 288.

10) 韓泰文, 朝鮮後期通信使 使行文文學의 特徵과 文學史的 意義, 東洋漢文學研究 第10輯, pp205-206

11) 李元植, 韓日善隣外交와 朝鮮通信使, 史學研究58, 59合集, pp849-850

12) 芳賀登, 朝鮮通信使의 발자취, 韓國學論集 p289

1) 중국측 발굴협력 연구원의 한사람인 北京中醫藥大學 梁永宣 교수의 증언  
2) 金靜日, 1636년 통신사와 조선의 대마도 인식, 淑明韓國史論創刊號, pp79-80, 1993.  
3) 鄭章植, 壬戌使行과 朝日關係, 日本學報 第47輯, p552, 2001.  
4) 申雄碩 외, 『桑韓醫談』과 한일의학문화교류, 韓國醫史學會誌17-2, pp73-98, 2004.  
5) 鄭章植, 1711년 通信使와 朝鮮의 對應, 日語日文學研究 第40집, 2002

.그래서 당시 면담을 신청한 일본인들 중에는 의사가 많았고 매번 사행 때마다 그들의 대답내용을 정리한 이른바 『醫學問答』<sup>15)</sup> 류의 서적이 다수 저술되었다. 현재 한국한의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관계자료중에 가장 이른 것은 1637년 간행된 丙子使行 때의 의학문답이고, 가장 많은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1748년 戊辰使行 때로 『班荊問譯』 등 12종이나 된다.

## 2. 『兩東唱和後錄』의 書誌

원서는 1권1책이며 14장이다<sup>16)</sup>. 별책으로 『兩東唱和別錄』과 『韓使官職姓名』이라는 조선사신명부가 있다. 원서는 正德二年(1712) 壬辰季春에, 浪速新林의 村上清三郎, 村田伊兵衛 등이 관각하였다. 현재 소장본은 昌平坂學問所 舊藏本이다. 이 책은 일본의 針醫 村上溪南 및 그의 長子 周男 등이 먼저 조선통신사 일행이 머무르고 있는 숙소를 禮訪하여 良醫 奇斗文과의 사이에 針術에 관하여 문답하고 뒤에 정리하여 글로 엮은 것이다. 필담은 그해 12월 9일자로 村上溪南이 정리한 것으로 되어있다. 村南은 號 樵齋로서 대대로 침술로 업을 삼았으며, 그 선조는 일찍이 조선의 雲海士의 제자인 金得拜로부터 의술을 전수받았다. 그에 아들 周男은 号가 得應齋이다. 奇斗文은 号가 嘗百軒로서 서울에 살았으며, 肅宗37년(1710)에 의원이 되어 이듬해 통신사를 따라 일본으로 건너갔다. 『兩東唱和後錄』 안에서 그는 鷄林(조선의 별칭)의 醫官 宣務郎으로서 관직은 朝散大夫 典濟司直長으로 실려 있다. 책 뒤에 『兩東唱和別錄』이 붙어 있으나 남아 있는 내용은 1장짜리 결본이며 뒷부분이 빠진 것이며, 거기에는 두 편의 詩賦가 적혀 있다. 뒤에 『韓使官職姓名』이 있어서, 통신사절단 일행의 구성원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는데, 그 해에 일본에 온 사람은 통신사 일행은 총 497명으로 소개하고 있다.

## 4. 『양동창화후록』에서의 한일침구학지식교류

『양동창화후록』에 보이는 의학적인 내용은 모두 침구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 이유는 면담을 요청한 村上溪南 등이 침구를 가업으로 하고 있는 일본 침구전문이었기 때문이다.

### 1) 村上溪南의 내력

『양동창화후록』은 正德元年(1711) 辛卯秋九月十四日 사신 일행이 大阪에 도착하고 같은 달 20日, 對馬州 醫士 梯靖庵相의 요청에 따라 村上溪南, 그의 아들 및 門人 杏仙과 朝鮮醫家は 西本願寺에서 처음 마주하게 되는 내용으로 본문의 처음이 시작된다. 이어 村上溪南은 奇斗文에게 인사를 하고 자신의 학문적 내력을 설명하였다.

13) 箕輪吉次. 天和二年(1682)의 朝鮮通信使. 亞細亞文化研究 제6집. pp117-119

14) 金景淑. 18世紀 朝鮮通信使 製述官 및 書記의 文學世界. 溫知論叢 제1집. pp146-147

15) 이 자료는 韓國韓醫學研究院에서 安相佑 연구원의 책임아래 2003년에 실시한 동아시아 전통의학권 소재 한국본 의학문헌 공동조사연구과정의 일환으로 일본과 중국학자들의 협조를 받아 일본 전역에 산재해 있는 조선시대 의학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자료이다.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이들 자료를 묶어 정리하는 과정에서 편의상 『醫學問答』이라고 명명하였다.

16) 현재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일본 내각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마이크로필름 복사본이므로 정확한 원관본 서지정보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여기서는 필록현상본의 형태로 14장이라고 표기한다.

### 《原文》 태의이신 기공계 올림

고명하신 이름을 들은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뵈게 되니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저는 성이 존상이며 자는 계남이고 호는 초재이며 집안대대로 침구를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유래는 선조께서 조선의 해운사의 제자인 김득배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으며 저도 그 원류를 본받아 그 가업을 잇고 있습니다. 모두 선사께서 내려주신 것이지만 자질이 모자라 침술이 스승에 비해 한참 모자랍니다. 그래서 간혹 그 요점을 어지럽히기도 하기 때문에 그 의문난 점을 모아 감히 여쭙겠습니다. (大鑿伯高公几下 高名瞻仰日久 幸今得挹光範 不勝欣悚之至 僕 氏村上 字溪南 號樵齋 家世業鍼 其傳來 祖先受貴國雲海士之弟子 金得拜之傳 僕得法其原流 而難箕裘之業 此皆先師之賜也 然資質頑愚 針刺法術 去師久遠 惑亂其要旨 故撮其疑者 敢問 - 『兩東唱和後錄』 -)

村上溪南은 奇斗文과의 첫 대면에서 자신의 학문적인 연원이 조선에 있음을 자못 자랑스레 내비치고 있다. 村上溪南이 조선의학계에 갖는 학문적인 동경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 문답이 이루어진 1711년은 막부의 고위관료 新井白石(1657-1725)<sup>17)</sup>가 조선과의 대등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국서나 의전 상에서 치밀함을 보이고 있을 때이다<sup>18)</sup>. 그리고 막부는 이미 1682년 壬戌使行 때부터 나라의 체면을 손상할 수 있는 필담은 삼가도록 요청한 바 있다<sup>19)</sup>. 그러나, 막부에서 그런 단속과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개 의사가 조선의사를 만나는 자리에까지 그 관리가 미치지 못한 것 같다.

한편 여기서 우리는 당시 조선의학계와 일본의학계의 수준 차이에 대해 의학사적인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의학기술이라는 것은 질병에서 벗어나고자하는 인간의 본능과 가까운 것이어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어느 인간집단에 게나 있어왔지만, 인간에 대한 이해와 치료방법 및 치료도구 등은 문명이 발달한 것과 궤를 같이하여 발달하여 왔기 때문에 시대적, 지역적인 격차가 있게 마련이다. 비근한 예로 중국은 춘추전국시대를 통해 각 지역의 문화와 기술이 교류되는 과정을 거친 후에서야 비로소 『黃帝內經醫學』이라는 지금의 전통의학의 원형을 이루어낼 수 있었고, 宋金元代 성리학적 소양이 풍부한 지식인들이 대거 의학연구에 투입되면서, 기존의 전통의학이 단순한 경험위주의 민간요법에서 벗어나 현재의 학문적인 체계를 이룰 수 있었다. 물론 이 과정에는 중국대륙이라는 넓은 지역과 많은 인구의 시행착오가 꾸준히 축적된 결과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의학은 자생한 토착의료가 존재하여 왔고, 그 나름의 특색위에 중국의 고급의료기술을 부단히 수입하고 다시 이것은 토착화시키는데 힘써왔다<sup>20)21)</sup>. 이 노력은 12세기 인쇄술

17) 新井白石(1657-1725) : 江戸지역 무사의 집안에서 태어나 幕府의 儒官이었던 木下順庵의 문하에서 유학을 연구하였다. 후에 木下順庵의 추천을 얻어 6대 將軍 德川家宣의 侍講으로 발탁되었다. 후에 덕천가신의 신임을 받아 막부의 권력자가 되었고 6대, 7대장군의 정치를 보좌하며 文治政治를 주도한 인물이다. 1711년 辛卯使行 때 조선과의 대등한 외교를 추진하려는 변혁을 주도하였다. (鄭章植. 壬戌使行과 朝日關係. 日本學報47, 林昌基 朝鮮時代 通信使와 日本 荻生徂徠門의 文學交流. 日本學報27)

18) 鄭章植. 1711년 通信使와 朝鮮의 對應. 日語日文學研究 제40집.

19) 鄭章植. 壬戌使行과 朝日關係. 日本學報 제47집. p.559. 2001.

의 발달로 문헌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진 기술력을 바탕으로 麗末 鮮初에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醫方類聚』가 간행된 15세기에 절정에 이르며 16세기부터는 점차 중국의학기술의 조선화 과정을 거치다가 17세기부터는 『東醫寶鑑』과 같은 중국의학을 조선화 시킨 결과물들이 서서히 등장하면서 중국의학과 대등한 수준에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생한 의학 기술이 예로부터 존재해 왔지만, 고립된 일본열도 내에서의 의료 수준은 조선의학이 중국의학과 끊임없이 교류하고 수준을 높여 왔던 것에 견준다면 상당한 수준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조선이 정부의 주도 아래 『의방유취』 간행이라는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선의학의 수준을 중국과 대등하게 하려는 노력을 했던 15,16세기에 일본은 극심한 내란에 휘말리면서, 더더욱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2) 是動病 所生病에 관한 村上溪南의 질문

다음으로는 시동병, 소생병에 관한 자못 긴 村上溪南의 질문이 소개되고 있다. 주요내용은 『黃帝內經·靈樞』에 나와있는 시동병, 소생병에 관한 것과 “以經取之”에 관한 질문이지만, 질문의 내용은 5장에 걸친 장문이다. 현재 전해지는 의학문답류는 주로 필답으로 이루어지고 현장에서 초고를 만들고 그것을 나중에 다시 정리하여 간행하는 형식이다. 그리고 이 의학문답류는 모두가 일본인들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본인들 자신의 질문내용은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원문》▶영추 경맥편에 말하기를 병에는 시동병이 있고 소생병이 있습니다. 성하면 사하고 허하면 보하며 불성불허한 경우는 경으로써 취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른바 사람의 병이란 것은 내증과 외증이란 것이 있는데, 밖에서 원인이 되어 안에 생긴 것과 안에서 원인이 되어 밖에 생긴 것, 그리고 또 밖과 안에 모두 병이 생긴 것도 있습니다. 대개 본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시동병은 외감병이고 소생병은 내상병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 깊은 이치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靈樞經 脉篇言 病有是動有所生而盛則瀉之虛則補之 不盛不虛 以經取之矣 所謂人之病有內外證 因乎外而及乎內 因乎內而及乎外 且有內外兼病者 蓋所論本篇非是動病者 外感而所生病者內傷乎 何而言之 - 『兩東唱和後錄』 - )

《원문》▶시동병은 육기의 병이며 육기는 전변하여 쉬지 않으므로 시동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삼음삼양의 기가 표에 있어서 천의 육기에 합응하며, 각각 수족의 경락을 순환하므로 기가 밖에서 문제가 되면 안에서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시동병은 삼음삼양의 경락기혈에 병이 있는 것이므로, 『종시편』에서 말한 것과 같이, 움직임이 인영기구(좌우촌구)에 드러나 일성 이성 등의 양상을 나타냅니다. 병이 기에 있고 경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성하면 그것을 사하고 허하면 보하라고 하였으니 『관침편』에서 말한 것과 같이, 천자하여 절피하고 더욱 깊이

자침하여 절피하니 이것은 침의 천심으로 음양기의 편성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부주리의 기운을 취한 것으로 경에는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저의 의견은 이와같습니다. 그 보사하는 자세한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是動者 六氣之病也 六氣旋轉不息 故曰是動 夫三陰三陽之氣 在表而合乎天之六氣 亦俱各循手足之經 而氣逆乎外而病見乎內也 又按是動者 病在三陰三陽之氣 如所謂終始篇 則動見乎人迎氣口左右寸口一盛二盛等 病在氣而不在經故 盛則瀉之 虛則補之 者 則若官針篇所說 淺刺絕皮 益深刺絕皮 此因針之淺深 以瀉陰陽之氣偏盛 此取皮膚之氣分而不及乎經也 管解如此有補瀉刺法乎 未詳其意 - 『兩東唱和後錄』 - )

《원문》▶소생병은 십이장부의 병입니다. 십이경맥은 장부에서 나오는 까닭에, 소생이라는 것은 무릇 장부의 병이 경맥이라는 외부로 드러난 것입니다. 오행의 기는 오장이 주하는 바이며 육부가 합하는 것입니다. 이에 폐비심신간의 기능은 모두 육부에 드러나고, 또 파생기관들인 진액기혈근골은 모두 장부의 소생이기 때문에 장부의 문제는 모두 경맥에 증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안에서 병들면 그 증후가 밖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후를 침자보사로 치료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所生者 十二藏府之病也 十二經脈 生于藏府 故曰所生 夫藏府之病 外見乎經證 蓋五行之氣 五藏所主而六府爲之合 乃肺脾心腎肝在府則津液氣血骨筋 此皆藏府之所生而外見乎經證 此俱病則因乎內而見乎外也 亦有針刺補瀉乎 未審是否 - 『兩東唱和後錄』 - )

《원문》▶다시 본편에서 말한 불성불허한 경우에 경으로써 취하라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음양의 기에 강약의 구별이 없고, 단지 병이 있는 경맥의 기혈이 조화롭지 못하면 그 경맥에서 혈자리를 선택하라는 말입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주된 증상이 나타난 경락 중에 있는 혈자리를 취하여 침으로 그 사기를 몰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이런 이치라면 그 혈자리에 침을 놓을때 자침의 높낮이 조절은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혈자리 하나 하나는 모두 정해진 것이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경맥의 병을 치료할 때 다른 경맥의 혈자리를 골라 병을 치료해도 또한 결과는 같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지금의 (일본에서의) 침놓는 법과 부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이겠습니까. (모두 경전에서 그 취지를 밝혀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나머지 편석구설의 보사와 정형수원혈의 자법과 무자의 법도 난경의 자모영수, 호흡영수, 왕래영수 등처럼 하나하나 정해진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말하기를 침법에 원리원칙이 분명히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제대로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자양이 편작의 의발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귀태자에게 놓았던 여침의 법을 얻은 것처럼, 귀가에 진월인의 침법을 전수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再按所論 本篇不盛不虛以經取之者 如陰陽之氣 無有盛虛而所生之經脈 不調則當取之於經數 所謂考搥一穴主證之經 而引針其邪疾而已 蓋如此則愈穴猶不可拘分寸之高低也 然則穴亦非穴也 在其經俞之主治 亦使從他經之俞而爲主治之而復不同哉 此轉合符於今時之治療也 是何偶中耶 其

20) 金南一, 우리나라傳統醫藥技術의 中國醫學輸入後 土着化에 대한 研究, 韓國醫學史學會誌16-1, pp17-38, 2003.

21) 차용석, 중국의 『醫學入門』이 한국의 『東醫寶鑑』에 미친 영향, 韓國醫學史學會誌13 1, pp114-117, 2000.

餘砭石灸炳之補瀉及井榮俞原之刺 或繆刺之法 如難經之子母迎隨 呼吸迎隨 往來迎隨等 其補瀉之義 區區不一定 今方於針刺也 雖曰 有規矩模範 未得之取用也 昔子陽得扁鵲爲之依歸 故得厲鍼於虢 太子 伏乞足下 賜秦越人之指導幸甚 - 『兩東唱和後錄』 - )

村上溪南은 이상에서 시동병, 소생병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였다. 이 시동병, 소생병은 『黃帝內經』 이전의 『馬王堆帛書』에서도 이미 그 원형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역사적으로 오래되고 또 당시에는 중요하게 취급되었던 일종의 질병분류방식이지만, 후대로 내려올수록 점차 그 의의는 약해졌고 현대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 개념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難經·二十二難』에서 시동병을 氣病으로 소생병을 血病으로 정의한 이래 청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張志聰과 徐靈胎 같은 대학자들도 이 개념에 대한 심도있는 해석을 시도하였다<sup>22)</sup>.

村上溪南의 질문의 형식을 빌어 자신의 학식을 과시하듯이 시동병, 소생병에 대해 긴 내용을 奇斗文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장황하게 기술되어 있는 村上溪南의 질문은 청대의 중국 의학자 장지총(1644-1722)의 저서 『黃帝內經靈樞集注』<sup>23)</sup>에서 표절한 것이다. 장지총은 『황제내경·영주』의 「經脈第十」 원문에 주를 달면서 시동병과 소생병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村上溪南이 奇斗文에게 제출하였다는 질문은 모두 「경맥제십」의 肺手太陰之脈의 시동병과 소생병을 설명하는 단락의 注文에 나온 시동병 소생병에 대한 문장만을 발췌하여 짜깁기한 것이다. 마지막의 村上溪南이 말한 以經取之에 관한 내용도 모두 그 주석의 내용이다. 村上溪南의 질문 중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부분을 ▶◀ 부호를 써서 표시하였다. 장지총의 『황제내경영주집주』는 『黃帝內經素問集注』와 같이 1670년에 저술되었고 2년 뒤인 1672년에 간행되었다. 1711년 당시로 본다면 상당히 최신의 의서에 해당한다. 1711년 신묘통신사의 副使였던 林守幹은 자신의 견문록 『東槎日記』에서 당시의 일본의 출판문화를 “국내에 인쇄된 책판과 당본이 매우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의경, 불경이 더욱 많으며 우리나라 서적을 번간한 것도 간혹있다”<sup>24)</sup>라고 기술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근거해 볼 때 村上溪南이 이 책을 구해보았을 가능성은 있다. 그렇지만 村上溪南은 이처럼 심하게 표절을 하고서도 원저자의 이름을 거론하기는커녕 버젓이 자신의 견해라고 말해버리는 무례를 범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村上溪南의 질문에서 표절이 확실한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기로 하자. 표절이 아니면서 비교적 길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부분은 “이경취지”에 대한 내용이다. “이경취지”라는 말은 경락에 자침하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있다. 문제는 어떤 경락에 어떻게 자침하라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역대 연구가들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장지총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고 다만 경락을

취하라는 대략적인 방향만을 제시하였다. 그것에 대해서 村上溪南은 “이경취지”의 의미를 그 경락에 자침하여 사기를 몰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며, 침법과 보사를 세밀하게 어떻게 하는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의미라고 단정해버리고 만다. 게다가 한길은 더 나아가 사기를 몰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면 그 경락이 아닌 다른 경락을 취사선택해서 침을 놓으면 된다고까지 벗어나 버린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지금 일본에서 쓰는 침법이 무작위인 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않고 모두가 『황제내경』에서 제시한 원칙에 입각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자의적인 결론에 도달하고 말았다. 그리고 덧붙여 砭石灸炳의 보사, 井榮輸經合, 原穴의 자법, 繆刺法, 『난경』의 子母迎隨, 呼吸迎隨, 往來迎隨 등 복잡한 침구이론도 자신이 볼 때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의미 없는 것 같다는 고백까지도 서슴없이 해버렸다.

비록 마지막에 자신은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이 가르쳐달라는 깎듯한 인사를 붙이기는 하였지만,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침술, 나아가서 일본의 침술은 비록 『황제내경』 이래의 침법에 대한 원리원칙은 잘 모르지만 임상에서 나름대로의 효과를 거두고 있고, 또 그런 일본의 침법은 무작위의 수준 낮은 침법이 아닌 이미 『황제내경』의 “이경취지”라는 말에서 그 방향성을 암시한 수준 있는 침구기술임을 은근히 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徒弟式的 엄격한 전수와 전통을 중요시하며 중국의 고급 의료기술의 정수를 잇는다고 자부하고 있는 조선의사 앞에서, 경전에 명시된 치료원칙마저 인정하지 않고, 게다가 자신의 무작위식 침법에 대한 정당성을 경전을 곡해하면서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1711년의 일본 측 대답기록인 『상한의담』에서 北尾春圃의 질문들이 학문적인 깊이를 보여주면서도 정곡을 찌르는 질문에 비한다면, 그리고 1748년 조선의관 趙崇壽를 당황하게 했던 질문<sup>25)</sup>과 비교해 본다면 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저변을 이해하기 위해 당시 통신사를 배알하는 일본지사인들의 목적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통신사들과의 대답은 단순히 순수한 학문적인 갈등을 해소하는데만 있지 않았다. 일본은 대외 정보통로가 대단히 한정되어 있었고, 조선 특히 일본에 간 조선통신사는 중국과 조선 그리고 동아시아 정세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단한 돌파구임<sup>26)</sup>과 동시에, 자신이 연마한 학문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sup>27)</sup>. 일례로 1711년 사행 때에는 당시 일본의 신흥지식인 문파였던 荻生徂來門 문하생들이 막부의 엄격한 통제를 피해가면서 통신사와의 대답을 성사시킴으로써 자신들의 학문적인 입지를 굳히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다<sup>28)</sup>. 그리고 통신사절단과의 접견인을 선정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사행을 중개한 대마도측 관리들과 막부의 인사들 일부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한때 접견을 거부당한 일본인 安藤東野라는 사람은 감옥에 갇힐 생각으로 접근하려고 했지만, 끝내 접견이 허락되지 않아 20년 쌓은 뜻이 하루아

22) 황민섭 등, 古代 經脈病體系에 있어서 是動則病과 是主某所生病의 淵源에 관한 연구, 대한침구학회지 19권2호, p15, 2002.

23) 張志聰, 黃帝內經靈樞集注(張志聰醫學全書本), 中國中醫藥出版社, 中國北京, pp409-410, 1999.

24) 林守幹, 東槎日記(金聲振, 朝鮮後期 通信使의 紀行詩文에 나타난 日本觀研究, 陶南學報 제15집, p169, 1996, 에서 재인용)

25) 차용석 외, 秦韓醫談과 韓日醫學文化交流, 韓國醫史學會誌17-2, pp78-95, 2004.

26) 장용걸, 朝鮮通信使의 儀禮性에 관한 고찰, 교육이론과 실천, 제9권, p236

27) 鄭章植, 壬戌使行과 朝日關係, 日本學報 제47집, p561, 2001.

28) 林昌基, 朝鮮時代 通信使와 日本 荻生徂來門의 文學交流, 日本學報 제27집, 1991.

침에 부너지는 것 같다는 슬픔을 토로하였다는<sup>29)</sup> 사실은 그들의 목적이 단순한 학문적 욕구해결에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극명한 예이다.

村上溪南이 질문에서 보여준 자기과시는 다소 천박한 형태로 드러나기는 했지만, 당시 일본인들의 학문적인 갈증해소와 동시에 자신의 입지에 대한 권위성부여라는 이중적인 의도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3) 시동병 소생병에 관한 奇斗文의 회답

이상과 같은 시동병, 소생병에 관한 村上溪南의 장황한 질문에 대하여 奇斗文은 오랜 여행으로 피로한데다, 잔무가 많고 또 자신의 소견이 짧아 바로 답을 해주지 못하게 뒀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하고 가지고 온 의서를 보여주는 것으로 대신하겠다고 답한다. [ 萬里行役 精神疲勞 雜務紛冗 未克穩談 幸有所持來之書 然管見不足 觀已姑塞其責 - 『兩東唱和後錄』 - ] 奇斗文이 같은 사행 때인 1711년 11월 1일에 大壇 全昌寺에서 있던 일본 의사 北尾春圃와의 대담에서 『황제내경』, 『난경』을 비롯한 의학이론에 박식하고 대단히 열정적으로 대담에 임하고 있음과 비교해 볼 때 다소 성의없는 태도이다.

앞서 논증한 것처럼 村上溪南은 장지충 의서내용을 자신의 견해인 것처럼 위장하였고, 개인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다소 격식에 어긋나 있는 등 제대로 된 의학자의 모습은 아니다. 이에 대해 기두문은 大坂에서 같은 해 11월 일본 의사 북미촌포를 만났을 때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원문》… 그대의 의론은 심히 마땅하며 지극한 이치로 선철의 의론을 본받은 것이 많다. 내가 대마도부터 江戶에 이르기까지 의학이론을 말하고 치법을 이야기하는 많은 의사들을 만나 보았는데 대부분은 고인의 법을 거스르는 경우였다. 오늘에서야 그대와 같은 고견을 듣게 되었다. … ( 足下之所論 洵當秘理 多效先哲之論 自馬州至于江戶 論理治療之業醫者 多違古人之法 今且正知足下之高明矣 - 『桑韓醫談·卷上』 )

기존 통신사연구논문에서도 여러 차례 밝혔듯이 통신사에게 면담을 신청한 사람들의 수준이 천차만별이었던 것처럼 조선의 관이 만난 일본의사들도 다양각색이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 2. 기타침법의 문의와 조선침구서

村上溪南은 奇斗文이 대답대신 건네준 침구서를 한번 보고서 다음과 같은 대화가 이어진다.

《원문》村上溪南 : 귀공의 책은 실로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중에 別穴의 존재는 삼가 베껴두고 싶은데 어떠신지요? 또 정형수경합의 혈자리는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 公之書 實是人世之所不見也 其中有別穴之在 欲書寫焉 未知許否 又有井榮俞經合之諸穴 如何爲取用之乎 - 『兩東唱和後錄』 - )

《원문》奇斗文 : 병을 치료하는 혈자리에 대한 내용도 모두 그 책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보았다면 답을 하지 않을 예정이니 무례하다고 여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 외에 별다른 견해는 없습니다. ( 治病論穴之說 皆在僕之冊中 君等既已觀之 不爲答書 幸勿見訝 此冊之外 僕別無意見 )

《원문》村上溪南 : 경락수혈의 분촌과 혈자리를 잡는 방법은 학설이 분분합니다. 다만 제가 불초해서 제대로 궁리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잘못 침구를 시행하여 수혈에 제대로 침을 놓지 않는다면 기육만 상하고 사람에게 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요점하면서도 가려내기 어려운 혈자리 오십여 개를 모아 하나의 작은 책자로 만들어보았습니다. 공께서 보시고 시비를 가려주시고, 다른 날이라도 그 이치를 알려주신다면 한사람의 다행이 아닌 만세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 經絡俞穴分寸及折量之法 古來諸說之同不同 不佞不講究也 若誤施針灸而愈穴不的則徒傷良肉而殘害於人 故竊撮療病之杆格 而難采擇者凡五十有穴 爲一小冊 謹呈 梧右乞公之是正恐至厭倦 願他日筆語以明告 底蘊則不一人之幸 實萬世之幸矣 - 『兩東唱和後錄』 - )

《원문》奇斗文 : 당신은 침에 있어서는 가히 응대할만합니다. 책에 나온 것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시고,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다른 날에 다시 글로써 회답하십시오. ( 君之於針也 可謂能勤矣 所示多端勿卒 特甚他日以再書復焉 - 『兩東唱和後錄』 - )

여기서 주목할 것은 奇斗文이 건넸다고 하는 침구서에 관한 사항이다. 현재 그 침구서가 어떤 책이였는지에 대한 단서는 村上溪南이 처음 보는 책이라는 것, 別穴과 井榮俞經合에 관한 내용이 있다는 정도이다. 이상의 단서로 어떤 침구서였는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필자는 그 책이 1644년에 간행된 許任의 『鍼灸經驗方』이었을 개연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당시 조선의 의료체계는 방약을 쓰는 것과 침구를 시행하는 것이, 의학 교육이나 의원취재에서 구분되어 있었고<sup>30)</sup>, 특히 궁중의 內醫院에서는 침구전문가가 있어서 침구를 시행할 때는 허준과 같은 수석의관들도 함부로 관여하지 못하였다<sup>31)</sup>. 그만큼 전문영역을 인정해준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 조선의 침구기술은 매우 발달하였음을 허임의 『침구경험방』을 일본으로 가져가 1725년에 일본관 『침구경험방』을 간행한 일본 의사 山川淳菴의 말을 통해 일면 엿볼 수 있다.

《원문》유독 조선을 침자에 있어서 최고라고 부른다. 평소 중국에까지 그 명성이 자자했다는 말이 정말 꾸며낸 말이 아니다<sup>32)</sup>.

『침구경험방』<sup>33)</sup>은 내의원 소속 침의인 허임에 의해서 지

30) 孫弘烈, 韓國中世의 醫療制度研究, 修書院, pp218, 254, 1988.

31) 朴文鉉, 許任의 鍼灸經驗方 研究, 경희대박사, p16, 2002.

32) 許任, 『鍼灸經驗方·山川淳菴序』(朴文鉉의 논문 '허임의 침구경험방 연구' pp8-9에서 재인용)

33) 이하 鍼灸經驗方에 관한 내용은 朴文鉉의 논문 '허임의 침구경험방 연구'에서 재인용

29) 朴昌基, 朝鮮時代 通信使와 日本 荻生徂徠門의 文學交流, 日本學報 제 27집, pp324-325, 1991.

어졌고 1644년 처음 간행되었다. 『침구경험방』의 첫 간행내력은 李景奭이 쓴 跋文을 통해 알 수 있다. 간행 연대는 “甲申年” 즉, 1644년(인조 22년) 4월이다. 당시는 김류(金鑣, 1572~1648, 호는 北渚)가 영의정으로 內醫院 都提調를 맡고 있던 때였다. 李景奭은 그의 밑에서 의약관계의 업무를 총괄하던 내의원 提調로 있었는데, 그가 호남관찰사인 목성선(睦性善)에게 부탁하여 『침구경험방』의 간행이 이루어지게 된다.[ 今首台北渚金相國都提內局 不佞適忝在下風 遂將此方 屬諸湖南觀察使睦公性善而刊行之” - 『鍼灸經驗方·跋』 - ]

이 책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간행되었고 일본과 중국에서도 간행되었다. 가장 가까운 년대로는 戊申字를 이용한 古活字本이 있고<sup>34)</sup> 이외 간행연도를 확인할 수 없는 목판본과 필사본<sup>35)</sup>, 諺解本<sup>36)</sup>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침구경험방』이 초간 이후에도 몇 차례 활자나 목판에 의해 重刊되었음을 말해 준다<sup>37)</sup>. 또한 여러 종류의 필사본이 존재한다는 사실로, 민간에서 임상침구서로 이 책을 폭넓게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 책의 분량이 작음을 감안할 때 더 많은 형태의 필사본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에서는 大坂 출신 의사 山川淳菴이 조선에서 유학한 뒤 일본에 돌아가서 享保 10년(1725년) 일본판 『침구경험방』을 간행하였고<sup>38)</sup>, 이후 安永 7년(1778년)에 한차례 더 간행하였다. 중국에서는 清末에 糜潤鴻이라는 침구학자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던 『鍼灸集成』이라는 책이 실제로는 허임 『침구경험방』 등을 그대로 표절한 것이라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는데<sup>39)</sup>, 이는 사실상 『침구경험방』의 또 다른 傳本으로 볼 수 있다<sup>40)</sup>.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침구분야를 중시하였다. 의학교육과정 중에서도 침구관련과목<sup>41)</sup>을 중시하여, 『銅人經』, 『鍼經指南』, 『十四經發揮』, 『子午流注』, 『鍼經摘英集』, 『玉龍歌』, 『鍼灸資生經』 등을 필독서로 지정하였고, 이러한 침구서적을 중앙과 지방에서 여러 차례 간행하기도 하였다. 조선중기에 와서는 이러한 토양 위에 『醫學入門』, 『醫學綱目』 등 明代의학의 침구학적 성과를 적극 반영한 허준의 『東醫寶鑑』 「鍼灸篇」이 간행된다. 허임의 『침구경험방』은 조선침구학의 이러한 역사적 맥락의 연장선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허준과 허임 두 의학자에 의해 만들어진 이 두 저술은 조선중기 침구학 발전의 양대 성과물이며, 당시까지의 침구이론을 재정리하고 임상적 경험을 결합시켜 조선의 의료실정에 맞는 침구이서를 만들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허임은 17세기 임상 침구학의 발전을 주도한 대가답게 역대침구이서를 활용하면서 자신의 경험적 색채를 혼합한 토속성이 짙은 『침구경험방』이라는 침구전문서를 완성

하였다.

그리고 『양동창화후록』에 나와 있는 유일한 단서인 別穴과 정형수경합에 관한 내용은 모두 『침구경험방』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井榮輪經』에 관한 이론은 漢代 『난경』 이래 침구학의 기본이론중의 하나이므로 여느 침구서에서나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別穴』은 『침구경험방』 중 하나의 목차이름이며, 다른 침구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항목이름이 아니다.

이상 당시 조선에서 널리 알려진 침구서가 허임의 『침구경험방』이었다는 점과 『양동창화후록』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단서를 모두 만족시킨다는 점에서 필자는 그 침구서가 허임의 『침구경험방』이었을 가능성을 높이 보고자 한다.

### 3. 침구시술과 腫鍼

『양동창화후록』에는 奇斗文이 일본의사에게 직접 침시술을 해주고 또 가지고 있는 침구를 보여주는 대목이 나온다.

《원문》 村上周南 : 소인의 성은 촌상이며 자는 주남이고 자호는 득응재이며 계남의 큰아들입니다. 우리 나라의 자법은 호침을 주로 쓰며 시침이라는 것은 있다는 것만 알고 어떻게 쓰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자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僕 氏 村上 字 周南 自號 得 應 齋 溪 南 之 長 子 也 我 朝 刺 法 知 用 毫 針 之 類 銀 針 之 法 未 知 刺 之 伏 冀 垂 示 其 刺 法 - 『兩東唱和後錄』 - )

《원문》 奇斗文 : 말이 통하지 않은 것이 한스러울 따름이다. 호침미침과 세침삼릉침은 모두 왼손대지를 얹어서 혈자리를 누르고 손톱의 바깥쪽 모서리를 취하여 자침합니다. ( 言 不 相 通 唯 以 爲 恨 耳 凡 毫 微 針 及 細 三 稜 針 共 用 左 手 大 指 伏 而 按 穴 取 其 爪 甲 外 之 際 而 刺 之 - 『兩東唱和後錄』 - )

《원문》 村上周南 : 그 자법을 자세히 모르겠으니 소인의 과욕을 직접 눌러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 其 刺 未 審 試 刺 僕 之 皮 肉 以 明 示 教 導 - 『兩東唱和後錄』 - )

《원문》 奇斗文 : 그 자법은 이와 같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직접 시범을 보여준다.) / 곡지족삼리를 자침하였다. 그 침은 크지만 통증은 느끼지 못하였다. ( 其 刺 法 如 此 刺 曲 池 足 三 里 雖 其 針 大 不 覺 忍 痛 - 『兩東唱和後錄』 - )

《원문》 村上周南 : 다른 침이 또 있습니까? ( 別 法 有 針 否 - 『兩東唱和後錄』 - )

《원문》 奇斗文 : (대중침 중중침 소중침이라는 것을 주머니에서 꺼내 보여주었다. 모두 너비3 정도 되는 크기이다.) 이것은 습열이 응결되어 종기가 생겨 통증이 심할 때 쓴다. / 이하 문장은 잃어버려진지 못함 ( 大 腫 針 中 腫 針 小 腫 針 以 上 廣 狹 三 針 出 於 懷 中 示 焉 此 濕 熱 凝 結 因 作 腫 甚 痛 者 下 丈 失 之 - 『兩東唱和後錄』 - )

奇斗文이 村上溪南의 아들 村上周南에게 보여준 시침이라는 것은 길이 3촌반으로 끝이 뾰족하여 피부속을 파고드는 것이 아

34) 戊申字는 1668년 이후에 사용됨.

35) \*1책(74장), 25×17.6cm, \*1책(45장), 21×18cm 표지명은 『鍼灸方』 규장각 소장

36) 三木榮. 朝鮮醫書誌. p.110

37) \*간행년도 미상의 목판본: 1책(51장), 9행20자, 20.4×14.6cm, 규장각 소장, 韓獨藥史館의 『山記念文庫本』 중에 목판본 3부 존재

38) 享保大坂刻本: 上中下3책, 享保10년(1725년), 간행자는 岡田三郎右衛門, 大坂吳服町書林, (山川淳菴 소장본)

39) 黃龍祥, 『鍼灸名著集成』, 華夏出版社, p.1214. 아울러 그는 『침구집성』이라는 책을 분권까지조차 없는 일종의 僞書라고 혹평하고 있다. 1996.

40) 박문현. 허임의 침구경험방 연구. 경희대박사, pp7 16. 2002.

41) 김두중. 한국의학사. p. 421.

나라 표표를 눌러 그 자극으로 기를 조절하는 침이다. [鍼鍼者, 長三寸半. 鋒如黍粟之銳, 主按脈勿陷, 以致其氣]<sup>42)</sup> 그리고 당시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쓴다고 한 호침은 현재에도 널리 통용되는 것으로 끝이 날카롭기 때문에 체표를 뚫고 깊이 찔러 기를 조절하는 침이다. [毫鍼者 長三寸六分 尖如蚊虻喙, 靜以徐往, 微以久溜之, 而養以取痛痺.]<sup>43)</sup>

그리고 중기치료에 쓴다고 하는 대중침, 중중침, 소중침은 현재 다른 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침의 명칭이다. 침의 종류는 『황제내경』에서 9가지의 침 종류를 명기한 이래 모든 침의 명칭은 이 九鍼命名法<sup>44)</sup>을 좇고 있다. 『동의보감』에서도 이 구침에 대해서 소개하였다<sup>45)</sup>. 따라서 명칭만으로는 구침에 해당하지 않지만, 중기를 치료한다고 하였고, 또 너비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구침 중에서 살피면다면 鍼鍼이 여기에 해당한다. 아마도 피침의 이명이었거나, 피침과 유사한 형태로 제작한 중기치료 전문기구로 생각된다. 혹은 구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村上周南이 중기를 치료하는 서로 다른 크기의 침을 편의상 중침이라고 명명해서 기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 4. 침구연구방법

츄다文과 일본의사와의 대화는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츄다文은 인사를 곁들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원문》츄다文 : …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여서 보사허실의 법과 『의학입문』의 자오유주의 법과 『신응경』 침구의 혈자리를 잘 알아 널리 배우고 밝게 변별함을 지켜 잃지 않는다면 만병을 치료함에 백발백중이 될 것이며 후에 반드시 일본의 창공편작이 될 것입니다. … ( 君勉勵勳勳 若 夫欲知補瀉虛實之法 醫學入門子午流注之法 神應經針灸之穴 博學明辨 守而勿失 萬病治療 百發百中後必爲 日東之倉扁矣 - 『兩東唱和後錄』 - )

위의 문답에서 언급한 『의학입문』과 『神應經』은 중국의 서이지만 한국의학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 의서이다. 『의학입문』에는 15,16세기에 걸쳐 단계학과 의학자들이 朱震亨의 의학이론을 중심으로 여러학파의 화설을 포용하면서 꾸준히 집적해 온 의학이론과 기술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있다. 특히 『의학입문』에서 수용한 의학은, 의학적 이치를 유교의 性理學의 논리구조로 설명해 내고 있는 朱震亨式 醫學<sup>46)</sup>이기 때문에, 성리학을 국시로 하는 명대지식인들과 동시대 조선과 일본 등 성리학을 추승하는 지식들에게 널리 보급된 의서이다. 선조대의 학자 유성룡도 『의학입문』을 연구해 『鍼灸要訣』<sup>47)</sup>이라는 저술을 남겼고, 『동의보감』을 저술한 허준도 중국의학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당시 중국의 최신의서였던 『의학입문』의 내용을 다수 참고하였다<sup>48)</sup>. 『동의보감』이 조선의 의사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한

1600년대 이후에는 의학이론은 『의학입문』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실제 임상에는 『동의보감』을 중심으로 하는 풍도가 정착하게 되었을<sup>49)</sup> 정도로 『의학입문』은 한국의학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조선후기에는 『及幼方』이나, 『方藥合編』 등에서 다수 인용되었고, 1831년에는 의사고서과목으로 채택되게 되었다.

『의학입문』은 종합의서로서 기초이론과 진단, 침구, 본초, 상한, 잡병, 부인, 외과, 소아과 등 의학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특히 『의학입문』에 나오는 「鍼灸」는 何若愚의 子午流注針法을 위주로 삼고 있다<sup>50)</sup>. 자오유주침법은 五運六氣의 원리를 침법에 응용한 것으로, 경험에 의한 침구치료기술이 아닌 운기적 원리에 입각한 침법에 해당한다. 치료기술의 원리와 응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의학입문』의 「子午流注」는 원리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 실제로 『의학입문』에는 경험적 침구치료기술을 정리한 「雜病穴法」을 자오유주라는 원리적 침법의 한 단계 아래수준으로 취급하고 있다<sup>51)</sup>.

그리고 「신응경」은 명나라 태조 주원장의 아들 寧獻王 朱權의 주도아래 만들어진 官撰성격이 강한 침구서이다. 주권은 陳會에게 부탁하여 唐代의 침구경험을 총망라한 『廣愛書』 12권을 저술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이 너무 많아 진희의 제자 劉璣이 실용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이 「신응경」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 「신응경」은 적은 분량이면서 많은 우수한 치료기술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뿐 아니라 조선과 일본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허임의 「침구경험방」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의학입문』의 자오유주법과 비교한다면 경험적 요소가 강하며 당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면서도 효과가 좋은 치료기술의 집적체인 셈이다.

따라서 츄다文이 언급한 “『의학입문』의 子午流注法과 「신응경」의 혈자리”라는 말속에는 침구의 원리를 잘 연구하고 또 우수한 경험기술을 제대로 익혀라 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볼수있다.

## 결론

1711년 신묘사행 중에 일본의사의 입장에서 기술된 의학 관련 대담기록, 『양동창화후록』을 통해 살펴본 조선조 한일의학 문화교류내용은 주로 침구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다. 기존의 조선통신사 연구논문들에서 밝혔듯이, 조선통신사는 문화적 우월감을 가지고 일본인들을 상대했으며, 일본인들도 조선통신사를 통해 학술적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기위해 지금 이 시대 못지 않은 韓流 열풍을 보여주었다. 간혹 어떤 일본지식인들은 조선통신사의 문사의 우월감, 거만한 태도에 문약하다고 비판하고 있지만,<sup>52)</sup> 전반적으로는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미친 영향은 지대한 것

國醫史學會誌13-1, 2000.

49) 金永勳 著, 李鍾器 編, 晴崗醫鑑, 성보사, pp475-476

50) 何若愚는 금대의 침구학자로서 1153년에 자오유주침법의 원리를 설명한 『流注指微論』 全3卷을 저술하였다. 1311년 원대에 關明廣은 『유주지미론』에 내용을 보충하고 주를 달아 달아 『子午流注鍼經』을 간행하였다.

51) 李樞, 『醫學入門』 「鍼灸·雜病穴法」 이것은 고법을 갖추어 놓은 것이며, 자오유주를 아는 사람들은 쓰지 않는다. (此備古法 知流注者不用)

52) 小林幸夫, 朝鮮通信使와 民衆, 日本學年報3, p80에서 재인용

42) 『黃帝內經靈樞·九鍼十二原』

43) 『黃帝內經靈樞·九鍼十二原』

44) 九鍼은 鑱鍼, 員鍼, 鍅鍼, 鋒鍼, 鍉鍼, 員利鍼, 毫鍼, 長鍼, 大鍼이다.

45) 許浚, 『東醫寶鑑·鍼灸篇』

46) 일반적으로는 丹溪學派醫學, 滋陰學派醫學이라고 통칭한다.

47) 柳成龍, 鍼灸要訣, 韓國醫學大系38卷, 여강출판사영인본.

48) 차용석, 중국의 「醫學入門」이 한국의 「東醫寶鑑」에 미친 영향, 韓



으로 평가하고 있다. 의학 분야에서도 일본이 유능한 의사의 파견을 직접 요청하였다는 사실 등을 통해 일본의학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었다. 본고는 그러한 정설에 덧붙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학교류가 이루어졌는지 고찰한 것이다. 비록 『양동창화후록』의 저자인 村上溪南이 장지총의 의서를 표절한 것, 여러 무례함을 드러낸 점은 양국의 의학교류에 장애요소가 되기는 하였지만, 관련기록이 비단 『양동창화후록』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가 진행될수록 미비한 점은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의 고찰을 통해 필자는, 기존의 사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몇 가지 신선한 내용을 접할 수 있었다. 시동병, 소생병에 대한 17세기 의학자들의 관심, 허임의 침구경험방의 일본전파에 대한 새로운 가설, 종침이라는 새로운 침구의 존재, 『의학입문』과 『신응경』의 18세기 동아시아 의학계에서의 영향력 등이다.

『양동창화후록』에 나와있는 조선의사와 일본 의사와의 대담의 전반적인 기조는 기존의 통신사연구에서 밝힌 내용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의학사 연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에 실린 구체적인 의학적인 내용은 기존의 사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중요한 사료이다. 나머지 의학문답류 서적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일차적으로 한일의학교류사라는 새로운 연구영역을 밝히는데 기여할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단순한 交流史뿐 아니라 조선시대 의학사를 연구하는데도 중요한 사료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계기가 되어 이 분야의 연구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할 것을 기대하며, 이 자리를 빌어 자료제공에 협조해주신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누리미디어 관계자분 들께 감사드린다.

## 참고문헌

1. 金靜日. 1636년 통신사와 조선의 대마도 인식. 淑明韓國史論 創刊號. 1993.
2. 鄭章植. 壬戌使行과 朝日關係. 日本學報 第47輯. 2001.
3. 車雄碩 외. 『桑韓醫談』과 한일의학문화교류. 韓國醫史學會誌17-2. 2004.
4. 鄭章植. 1711년 通信使와 朝鮮의 對應. 日語日文學研究 第40집. 2002.
5. 箕輪吉次. 天和二年(1682)의 朝鮮通信使. 亞細亞文化研究 第6집.
6. 芳賀登. 朝鮮通信使의 발자취. 韓國學論集
7. 韓泰文. 朝鮮後期通信使 使行文學의 特徵과 文學史的 意義. 東洋漢文學研究 第10輯.
8. 李元植. 韓日善隣外交와 朝鮮通信使. 史學研究58,59合集.
9. 金景淑. 18世紀 朝鮮通信使 製述官 및 書記의 文學世界. 溫知論叢 第1집.
10. 朴昌基. 朝鮮時代 通信使와 日本 荻生徂徠門의 文學交流. 日本學報 27.
11. 金南一. 우리나라 傳統醫藥技術의 中國醫學 輸入後 土着化에 대한 研究. 韓國醫史學會誌16-1. 2003.
12. 車雄碩. 중국의 『醫學入門』이 한국의 『東醫寶鑑』에 미친 영향. 韓國醫史學會誌13-1. 2000.
13. 황민섭 등. 古代 經脈病體系에 있어서 是動則病과 是主某所生病의 淵源에 관한 연구. 대한침구학회지 19권2호. 2002.
14. 張志聰. 黃帝內經靈樞集注(張志聰醫學全書本). 中國中醫藥出版社. 中國北京. 1999.
15. 金聲振. 朝鮮後期 通信使의 紀行詩文에 나타난 日本觀研究. 陶南學報 第15집. 1996.
16. 장용걸. 朝鮮通信使의 儀禮性에 관한 고찰. 교육이론과 실천. 제9권.
17. 小林幸夫. 朝鮮通信使와 民衆. 日本學年報3.
18. 朴文鉉. 許任의 鍼灸經驗方 研究. 경희대박사. 2002.
19. 지자미상. 黃帝內經靈樞. 中國醫學大系本, 여강출판사 영인.
20. 지자미상. 黃帝內經素問. 中國醫學大系本, 여강출판사 영인.
21. 지자미상. 難經. 中國醫學大系本, 여강출판사 영인.
22. 劉瑾. 神應經.
23. 許浚. 東醫寶鑑. 朝鮮甲戌中秋內醫院刊本, 남산당 영인.
24. 李梴. 醫學入門. 朝鮮戊寅年内局重正本, 고려의학 영인.
25. 柳成龍. 鍼灸要訣. 韓國醫學大系本, 여강출판사 영인.
26. 民族文化推進會. 國譯海行總載.
27. 奎章閣. 朝鮮通信使膳錄
28. 三木榮. 朝鮮醫書誌.
29. 金斗鐘. 韓國醫學史.
30. 金永勳 著, 李鍾馨 編, 晴崗醫鑑, 성보사.
31. 孫弘烈. 韓國中世의 醫療制度研究. 修書院. 1988.